

육천 년 묵은 죄악을 해결하는 이슬성신

격암유록과 불경에 정도령·생미륵불 얼굴만 봐도 영생

이 제단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구원이지 하루라도 빠지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구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배를 보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써져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고 써져 있었어요.

육천 년 묵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슬성신을 개발하셨다

여러분들 몸 속에 묵은 때가 몇 년 묵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나이만큼만 그때가 묵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피가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죠?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피로 만들어졌죠? 천 대만 대 올라가면서 이 피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더러운 피가, 나라는 그 주체의 의식이 육천년 묵은 대마귀야.

육천년간 때가 묻은 죄야. 그 죄를 그냥 보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그 죄 해결되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죄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천년 묵은 그 죄가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죄 완전히 세척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슬성신을 받아도 그 죄 벗겨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육천년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가 되는 나라는 주체의 의식을 죽이는 그러한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무기가 바로 이슬성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슬성신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마는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이슬 내리면 안 죽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죽게 되는 시대가 와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을 전부 하나님 만들려고 왔어. 하나

님이 되어버리면 여자도 남자도, 다 남자와 여자 못이 없어.

몸의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로 변할까, 안 변할까? 몸의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로 변해. 그러나 마귀인 선악과가 되는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 사람 그대로 있다가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바로 선악과인 육천년 묵은 마귀예요. 뭐 몇 백 년 묵은 마귀도 아니야. 육천년 묵은 마귀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이가 갈려, 안 갈려? 그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고, 이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 의식이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 안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귀가 사기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기는 대로 하는 거야?

음란죄 아니면 구원 못받아

내가 육중에서 예레미야서 16장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읽으라고 16장 읽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읽었죠? 성경에 써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설교를 했지 자의로 조작을 해서 설교한 일은 없어. 마음으로 음란죄를 저도 음란죄라고 성경에 버젓이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행동으로 지을 정도면 그것은 그야말로 저주 아래 인생들이 하는 짓일까, 축복 받은 사람이 하는 걸까? 저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중략)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그 전에 말씀할 때에 전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야. 영생 얻으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영생과는 상관없어.

내가 승사다, 내가 장로다, 해 가지고 뭐 어캐다 힘주고 빼고 땀기는 거 그래



구세주 조희성님

가지고는 되질 않아. 이 길은 직책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힘들어, 힘이 안 들어? 말할 수 없이 힘들죠? 이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힘이 안 들었으면 안 했어.

한 사람을 전도를 하려면 그야말로 젖 먹던 힘 다 들어가야 돼.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뭐 갖은 서비스를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 생활비가 다 들어가요. 그렇게 힘든 전도를 한다는 게 그게 수월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체험을 했어, 안 했어? 전도할 때에 불성신이 오는 사람도 있고, 생수가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게 이렇게 연결되면 몸이 가벼워, 안 가벼워? 몸이 가벼워?

하나님의 신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부여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

람이 육중에 있었어도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진액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전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한테 보낼까? 안 보내. 명탕구리 바보가 아니야. 전도를 하는 사람만 골라서 그 은혜를 부여 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생명을 걸고 열심히 충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마귀 죽이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이 사람이 7년 동안 징역살이 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던 거야. 마귀의 속성이 새끼 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새끼를 계속 치기 때문에 마귀가 셀 수 없는 마귀가 범람해 있어. 그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밀실에서 대장마귀를 죽이고 나왔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대장마귀를 죽이고 나왔어. 이 사람이 대장마귀를 죽이고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구원 못 얻어. 대장마귀가 셀까, 안 셀까? 엄청나게 세요. 그 대장마귀를 죽이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면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은 못해. 사람은 못하는 거야. 육천년간 이 마귀를 죽이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지고 나온 거야. 여러분들은 이긴자를 뺏으려고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복된 사람인 거야. 격암유록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정도령 얼굴만 봐도 영생을 얻는다고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영생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불경에도 써져 있었어요. 그렇게 생미륵불 얼굴만 봐도 이제 그대로 열반에 든다 그랬어요. 범죄를 계속하기 때문에 얼굴 바서 죄를 사해 주었는데 또 범죄하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또 더러워져. 그래 또 벗겨 주는 거야. 또 더러워져. 이걸 거듭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단을 가득 채워놓아야 영생의 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이긴자라는, 그 정도령이라는 구세주가 살지는 불쌍한 존재일까, 아주 자랑스러운 존재일까? 불쌍한 사람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다 해결해야 할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세주를 불쌍한 사람 만들지 않으려면 희생적으로 그야말로 1초 1초 총력을 다 해서 협조를 해야 돼, 안해야 돼? 총력을 다 해서 협조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그대로 구세주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알 만한 사람들은 육중에서 내가 말씀을 했지만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나와서 일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나라에 가서 이 역사를 몇 년간 펼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나라죠? 일본만 점령하면 전 세계가 점령될까, 점령 안 될까? 저절로 점령되죠? 저절로 점령 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 가려고 이제 그대로 그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나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생각하니가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엾어, 안 가엾어? 가엾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가는 문제를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은혜를 부여 주어서 여러분들이 제 발로 걸을 때에 가도 될까, 안 될까? 가도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본 가서 이제 그대로 그 진리의 역사를 펼치려고 하니가 일본서 일본식 구들이 이 사람이 거처할 아파트도 사 놓고, 롤스로이스 새 차를 사 놓았어요. 이제 단도 일본 사람들이 지었어, 한국 사람들이 지었어? 일본 사람들이 지었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인 고로 충성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기울어질까, 안 기울어질까? 마음이 기울어지죠?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빈 자리를 많이 놓고 있는 것이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세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없죠? 될 수 없어.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외면을 해. 내가 몇몇 사람한테는 말했지만 한국을 버리고 했어요. 한국을 그대로 버리고 일본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해 가지고 일본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 미국나라를 점령해서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움직였다면 그건 참말로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 아니야?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새 출발을 해서 이제 그대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섬성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도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돼요.*

2000년 8월 27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장 이삭의 하나님》 (4)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충성된 종

(4)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충성된 종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다다른 때는 저녁 무렵이어서 여자들은 저녁밥을 마련하느라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한창 모여들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동구 밖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여기에는 물 길러 오는 예쁜 처녀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 당신의 물동이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할 때 물동이의 물을 나와 나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처녀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녀로 하여 주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손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물고 온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창 24:19-20) Rebecca and Eliezer, c.1880-1882. Artist: Achille Jacquet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마치고 한 젊은 처녀가 왔습니다. 그 처녀는 리브가라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길러 가지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처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구려." 하니, 그 처녀는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를 손으로 내려놓고 "예,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마시세요." 하고 "그러고 보니 낙타도

《2장 이삭의 하나님》

집에는 짐과 여물이 많고 하룻밤 묵을 곳도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동생집이 있는 곳으로 왔군요. 어르신 나홀은 강건하신지요?"

"할아버지 나홀은 작년에 백서른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 밀가는 십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홀 49세에 밀가와 결혼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아들 브두엘은 나홀 77세에 낳았습니다. 또 나홀은 첩 르우마에게서 아들 빛을 낳았습니다. 그 리하여 나홀은 열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그를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한 살 아래의 나홀이 77세에 브두엘을 낳고 브두엘 38세에 딸 리브가를 낳았으므로,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대화할 때의 리브가는 이삭의 마흔 살에 비하면 스물여섯 살의 옛된 소녀였습니다. 경건한 종은 처녀에게 금고리 한 개와 금팔찌 한 쌍을 선물로 주고 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키가 앙증맞게 작고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한 소녀는 어미 집으로 달려가 이 일을



아브라함의 경건한 종이 처녀 리브가에게 금고리와 금팔찌를 선물로 주다(창24:22) Rebecca and Eliezer at the Well, c.1655-1657. Artist: Carlo Maratta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누이동생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우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라반이 금고리와 금팔찌를 낀 동생을 보고 가슴이 부풀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 와서 열 마리의 낙타 등위에 선물보따리로 보이는 짐이 가득한 것을 본 라반은 '과연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으로 부유한 자가 되셨구나!' 하고 나직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찌 밖에서 있나 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 하였나이다

안젤라